

만성 안면마비 환자에 있어 다양한 유리 근신경 이식술을 이용한 역동적 입술 재건술

안기영 · 이승환 · 장경수 · 한동길 · 박대환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만성 안면마비 환자에 있어 이상적인 입술 재건은 입술 괄약기능의 복원, 운동시 혹은 휴식시 안면 대칭 및 자연스러운 미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어떠한 방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입술 재건을 위해 static한 재건술보다 dynamic한 재건술이나 신경 복원을 더 선호하지만 이러한 dynamic 재건술에 대해서도 많은 문헌들이 여러가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dynamic 재건술 중 하나의 술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마비의 원인, 기간, 마비 정도, 환자의 기호뿐만 아니라 재건술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1994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6례의 환자에 있어 dynamic한 웃음을 재건하기 위해 유리 근신경 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이중 1례는 비복신경을 이용한 cross-face nerve graft 후 유리 복직근 근신경이식술을, 1례는 환측의 신경중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안면신경분지와 박근을 이용한 유리 근신경이식술을 나머지 4례에서는 one-stage 유리 광배근 근신경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환자에 따라 마비성 토안의 재건을 위해 상안검에 순금 이식술을, 하안검 외반증 교정을 위해 측두근 전이술을 이외에도 눈썹 하수 교정술 등을 시행하여 환측의 비대칭을 교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전체적인 안면 대칭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